

“美 금리 인상’ 가장 큰 변수... ‘원금보장’ 채권 비중 늘려야”

재테크 길을 묻다

美 금리 예상치보다 높을 경우 달러강세로 수입물가 인상 우려 경기침체·기업실적 감소 할 수도

자산관리 전문가(PB·프라이빗뱅킹)들은 올해 재테크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꼽았다.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높게 올릴 경우 경기침체와 기업실적 감소로 악한 고리들이 쉽게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달러강세(원화약세)로 이어져 수입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자산비중, 채권)주식)대체자산

PB들은 투자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인 자산비중을 채권)주식) 대체자산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은 원금상환을 보장하고, 통상 1년에 두 번씩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주식은 기업이익의 일정비율을 배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주식은 적자가 나거나 경영에 재투자할 경우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김유나 KB국민은행 KBGOLD&WISE the FIRST센터 PB 수석전문역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고용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지수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예측불허의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채권은 분할 매수한 뒤 기간과 채권 종류별로 비중을 조절하고, 주식은 주가지수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실적이 좋은 섹터 등으로 분류해 배



김유나
KB국민은행 PB 수석전문역



장개천
신한은행 PWM판교센터 팀장



남유리
우리은행 TCE강남센터 팀장



정원호
KB증권 강동지점장 부장



서채영
KB증권 부천지점 부장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손현승
하나증권 club1한남WM센터 부장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GWM센터 팀장



우종운
유안타증권 MEGA센터분당 차장

분해야 한다”고 했다.

채권은 국채의 경우 10년 3.7% 수준의 장기 국채를 추천했다.

서채영 KB증권 부천지점 PB부장은 “채권투자의 관건은 투자하는 시점의 금리수준과 향후 예상되는 금리 하락 경로”라며 “미국보다 금리인상 사이클을 먼저 종료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진폭

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직접투자가 부담스럽다면, 만기 매칭형 채권 상장지수펀드(ETF)도 가능하다.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등 10여종이 넘는 채권에 투자하는 ETF로 증시가 열리는 시간에는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다. 또

만기가 있어 만기까지 ETF를 보유하면 매수시점에 예상한 수익률을 받고 펀드를 청산할 수 있다.

주식은 직접투자나 하방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제안했다. 수익률이 높은 분야는 2차전지소재와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했다.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GWM센터 PB

채권, 원금상환 보장·이자 지급 10년 3.7% 수준 장기 국채 추천
주식형 상장지수펀드 투자 제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중심 예상
고액자산가 절세형 채권 수요 증가
신종자본증권도 금리 높아 인기

팀장은 “2차전지소재와 같이 이슈 있는 종목들 사이에서 수익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대형주 보다는 모멘텀이 뚜렷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순환매에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손현승하나증권 Club1한남WM센터 PB부장은 “올해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본격화돼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첨단부품과 핵심 광물 등은 생산비용의 약 10%를 세액공제 받게 됐다”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종목에 편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 고액자산가, 절세 위해 장기국채 찾아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가 많아 낮은 절세형 채

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호 KB증권 강동지점 PB부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2분기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고채 20~30년 장기물을 통해 채권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발행된 표면이율 1%대 장기물의 경우 절세를 위해 대기하는 예약만 몇 천 억이 될 만큼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채권, 주식, 옵션의 특징을 모두 갖춘 신종자본증권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리인상으로 발행금리가 2년전보다 약 2%포인트(p) 올라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다.

남유리 우리은행 TCE강남센터 PB 팀장은 “최근 발행된 신한, 국민, 대구, IBK기업은행 신종자본증권은 4.53~4.73%로 확정됐다”며 “현재 시장에서 5년 고정금리로 3개월이나 이자수취가 가능해 자산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에 대한 선호도도 뚜렷했다. ELS는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주가에 연계해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조기사항 기준일에 하락률이 기준 이상이 면 정해진 수익률로 조기 상환된다.

우종운 유안타증권 MEGA센터분당 PB차장은 “지난해 시장 변동폭이 커지면서 조기사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이 증가해 발행 시장도 얼어붙었다”며 “올해는 지난해 만큼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ELS 선호가 늘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美 추가긴축 예고에 강달러 지속... CPI가 변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돌파했다. 강달러(원화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변곡점으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일 1324.2원에 마감했고, 장중 1329.0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1260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320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2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9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574억 6700만 달러로 지난달 말(560억 6000만 달러)보다 14억 700만 달러가량 증가했다.

약 10일 동안 원화 환산 1조 8500억원(1달러=1320원) 급증한 것이다. 국내 은행의 달러 예금은 지난해 12월 말 690억 1500만 달러로 정점에 오른 후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급

원·달러 환율 장중 1329원까지 치솟아 4대 시중은행, 이달 달러예금 2조 폭증

CPI 발표 주목... 환율·금리 변곡점 기대 전망치보다 낮을땐 연준 매파발언 중단

격하게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에 미국발 통화 긴축 공포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는 21~22일 열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주식시장 마감 시점 기준 연준이 3월 금리를 0.25%p 인상할 가능성은 34.7%, 0.

50%p 인상 가능성은 65.3%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FOMC 회의전 CPI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2월 CPI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CPI 결과에 따라 환율, 기준금리 등의 향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월의 상승률 6.4%에 비해 소폭 둔화한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2월 CPI가 전월 대비로는 0.5% 올라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5%, 전

월대비 0.4%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CPI지수가 시장전망치보다 크게 하락하게 될 경우 연준 역시 매파적 발언을 중단할 수 있어 원·달러 환율 역시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점도표 상황, 금리인상 속도 확대 가능성을 어필하면서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 충격을 유발했다”며 “CPI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과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조정을 받았던 지난해 말 양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1면 ‘불확실성 시대 지속’서 계속

주식형 상품 등으로 시장 변동성 대비를

최근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상품은 절세형 장기국채(20~30년물)나, 예금금리보다 높은 신종자본증권 투자였다. 얼마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금리는 4.5~4.7%. 5년 고정금리로 3개월 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대기 자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PB들은 적은 위험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채권, 기업의 성장성이 꺾이는 등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수익 또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식형 상품을 선택해 시장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은행장개천PWM판교센터 PB팀장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은 시장에서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위험 대비 수익률이 양호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